

해남·진도·완도 광역화장장 건립 '쟁걸음'

정부 연계협력사업 선정 90% 국비 지원

해남 황산면 일대 내년 착공 2016년 완공

해남군과 진도·완도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황산면 원호리 일대에 조성될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이 정부의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됐다.

당초 해남군이 단독으로 추진한 화

장장 건립은 인근 지자체인 완도군과 진도군이 가세하면서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연계협력사업 선정으로 화장장 건립비의 국비지원율이 당초 70%에서 90%로 상향되면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62억6000만원 중 55억92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방부 부담액 6억2000만원도 3개 군이 나눠 내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 원호리 8만3000㎡의 부지에 13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 중 하나인 광역화장장 연계사업은 2만1900㎡의 부지에 화장로 3기와 봉안당 1만기가 조성된다.

이들 3개 지자체는 향후 행정협의 회를 구성해 사업비 부담율과 부담사

기, 사용 할인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장장 연계협력사업은 해남과 완도·진도에 화장시설이 없어 목포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남군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해남군은 광역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3개 지자체 주민들의 화장을 감안해 택 등으로 화장 관련 경제적 부담이 70% 감소되고, 이동 시간도 50% (목포 시립화장장 기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협오시설로 인식되던 화장장이 인근 지자체와 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라며 "행정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면 2016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바이러스 무병묘를 키우고 있는 해남농업기술센터 식물조직배양관.

해남, 고구마 무병묘 20만본 보급

품질 향상·수확증대 기대

해남군이 고구마 품질 향상과 수확 증대를 위해 바이러스 무병묘 20만본을 보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바이러스 무병묘(이하 무병묘) 농가 보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밭고구마와 호박고구마 무병묘 11만본을 보급했다.

오는 6월까지 9만본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군은 1묘당 생산원가가 800원인 무병묘를 100원에 공급했다.

무병묘 종순은 모양과 색깔이 뛰

나고 균일한 품질과 높은 수확량으로 일반묘보다 3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이 보급한 무병묘 20만본은 농가에서 종순 증식으로 해남 고구마 식재면적(2000ha)의 73%인 1475ha를 재배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 무병묘는 지난 2월 준공한 전국 최대 규모의 식물조직배양관에서 생산한 것이다.

무병묘 고구마 종순은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밭에 옮겨 심게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이달엔 여수 사도·다음달 보성 장도...

목포대 '명품 섬 여행' 성공 예감

10월까지 月 한차례 진행

안좌도 여행 40여명 참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이 매달 한 차례씩 진행하는 '명품 섬 여행 프로그램'이 성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서문화원은 다도해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달 신안 안좌도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8개 섬을 대상으로 섬 여행을 진행한다.

라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벤트형 캠퍼스나 개별적 방문에 머물렀다.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은 "이번 여행은 섬과 문화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30년의 섬 연구 성과와 노하우를 활용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과 협력해 섬 스토리북 발간, 섬 밥상 메뉴 개발, 민박 지도 등 섬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원이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명품 섬 여행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달 여행이 예정된 여수 사도의 얼굴 모양 바위. <목포대 제공>

영산강 황포돛배 본격 운항

영산강 물길을 따라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황포돛배(목포호)가 운항을 시작했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황포돛배는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정기검사와 수리를 끝마치고 운항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전남도에서 제작한 이 돛배는 목포시가 영산강 유역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관광 패러다임을 추구하고자 관광 상품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길이 25m, 폭 5m, 정원 50명 규모의 전통 한선(24t)으로 330마력 9노

트 동력선이다.

운항구간은 옥암동 계류장을 출발, 영산강을 가로질러 무안과 영암을 잇는 무영대교까지 왕복 20km로 1시간 30분이 걸린다. 황포 돛 달기, 노 젓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1일 총 4회(오전 9시, 10시 30분, 오후 2시, 3시) 운항한다. 이용요금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500원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영암서 도기빚기 체험하세요

영암 박물관, 5~8일 행사

영암도기박물관이 왕인문화축제제가 열리는 5일부터 나흘간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달빛 담은 영암도기 빚기' 체험 행사를 연다.

2일 박물관에 따르면 영암의 우수한 전통 도기문화를 알리고 계승하고자 전문 도예가의 작품 제작 시연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도기 빚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예가와 함께하는 도기 만들기, 물레체험, 모양틀로 빚는 영암도기, 구립도기 퍼즐 맞추기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특히 도자기

만들기는 도기 빚기와 도기 굽기로 나눠 진행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은 또한 5일부터 다음달까지 "그릇 특별기획전"도 연다.

이번 전시는 구립도기의 의미를 조명하고 삶의 단편을 빚어가는 도자이야기와 예술의 의미를 담은 살림살이 그릇이 주체다.

이번 전시 참여 도예가들은 실용적 목적을 가진 그릇을 작업의 주요 테마로 전개하는 작가들이 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고희숙, 손경희, 유정민, 이세용, 임성빈, 허상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전북

'조선판 사랑과 전쟁' 아시나요

전북대 박물관 조선시대 고문서 2만5천여점 소장

이혼·고위층 비리 고발·노비제도 실상 등 담겨

"아내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동고동락했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 아침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외도한 아내를 원망하는 한 남성의 한탄스러운 말은 국내 유명 TV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의 대사가 아니다.

이 문구는 국내 대학 박물관 중 가장 많은 고문서를 보유한 전북대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이혼 합의서'의 한 구절이다.

이 합의서에는 "칼을 품고 가서 그녀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엽전 35냥(현재 100만원 상당)을 받고 영원히 혼인 관계를 파기하고 위 덕(돈)으로 보낸다" 등 경제적 상황 때문에 돈 몇 푼을 받고 외도한 아내를 보내줘야 했던 최덕현이라는 사람의 원통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

또 다른 고문서에는 자신의 직위를 담보로 죄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

겠다며 돈을 가로챈 고위 관리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조선 후기 전라도 장수현 계남면에 살았던 양사헌이라는 사람은 노름빚 때문에 고을 수령이 있는 관가에 끌려가게 됐다. 노름빚을 갚지 못한 양사헌은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가족들은 양사헌을 구하려고 노름빚 170냥 중 50냥을 선납하고 빚쟁이와 합의를 보려 한다.

양사헌은 나머지 빚 120냥을 자신에게 주면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고 수령이 돈을 가로챈 탄원서를 작성해 수령에게 돈을 받았다는 '공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탄원서 말미에는 "(잔말 말고) 처분을 기다려라"라는 수령의 성의없는 답장이 적혀있다.

전북대 박물관이 소장한 고문서에는 위의 이야기 외에도 제사 밀천을 탐진한 종손을 비판하는 문종의 집단 탄원, 배고픔에 자진해서 감옥

에 간 평민, 생활고 때문에 딸을 판 부모 등 조선시대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고문서를 통해 당시 감옥의 모습과 가징정의 구조, 노비제도의 실상 등 조선시대 선조들의 모습도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전북대 박물관은 이같은 15~20세기 조선시대 고문서 2만5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 고문서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전북대 사학과를 주축으로 벌인 '전북지역 고문서 조사' 과정에서 기증과 기탁, 구매를 통해 박물관에 자리하게 됐다. 전북대는 호남 기록문화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여 리말포 번역했다.

전북대 박물관은 앞으로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고문서를 활용해 영상 전시와 테마 체험, 설명자료 등 다양한 전시 기법을 발전시켜 관람객과 고문서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철 학예연구사는 "2011년 전북대 박물관이 신축·개관하면서 기록문화실을 따로 마련해 흥미로운



2일 전북대 박물관 수장고에서 이종철 학예연구사가 소장된 고문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문서들은 선정해 상설 전시하고 있다"면서 "재미있는 고문서, '고문서 테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쉽게 관람객들이 고문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 nogusu@

단신

군산시 '음주폐해알림이 교실' 운영

군산시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알림이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일 군산시보건소에 따르면 2012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19.4%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음주폐해알림이 교실을 오는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은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음주, 음주고글체험, 절주 포스터 및 표어 만들기, 군산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안내 등으로 이뤄진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정읍시는 최근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타기 문화 정착 및 생활형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90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안전교실은 어린이교통공원 및 해당 학교에서 일반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전거 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수 및 전문

강사가 참여하는 안전교실에서는 교통법규 및 소양교육, 이론교육, 주행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0일까지 시청 도시과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5월13일~16일까지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사전연습회 후 위탁교육으로 실시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지역 도시가스 사용료 카드납부 가능

전북지역 도시가스 사용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2일 전북도는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도시가스 3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금융기관, 도시가스 회사는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달부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인터넷 자동 납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1.5%) 부담 문제로 가스 회사를 방문해야만 가능, 도민의 대표적 불편 사안으로 꼽혀왔다.

신용카드 납부를 희망하는 가구는 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전주=박금석기자 nogusu@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KTX 전라선 증편을'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2일 "KTX 전라선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하루 왕복 12회에 불과,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증편을 촉구했다.

도내 경제·기관단체로 구성된 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주 한옥마을과 엑스포가 열린 여수 등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전라선의 운행횟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항공편이나 여객선도 없어 교통의 오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속속 입주하면 KTX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전라선 증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전주=박금석기자 nogusu@

전북도민 흡연·음주율 타 지역보다 낮아

교통안전 의식·건기 운동은 개선 필요

전북도민들은 대체로 흡연과 음주율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교통안전과 신체활동에 대한 의식과 습관이 많이 뒤쳐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지역 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핵입대학으로 지정돼 14개 시·군에서 1만2418명을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북 도내 14개 시·군의 남자흡연율은 37.9~50.9%로, 여자 흡연율은 41.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중앙값(44.7%)보다 다소

낮은 수치다.

또 월간 음주율은 36.9~54.9% 사이의 분포로 중앙값이 48.3%를 보였는데 이는 전국 중앙값 55.7%보다 낮았다. 하지만 경기 실천율은 전국 중앙값보다 4.7%포인트나 낮은 도민들이 경기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의식 가운데 안전벨트 착용률이 61.7%로 전국 중앙값 74.2%보다 낮아 안전벨트 착용의식이 아직 다소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박금석기자 nogusu@

남원, 기업 편의 도모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남원시가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벌인다.

남원시는 관내 2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토지관리 민원, 재산관리 편의제공, 상담 등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적분야 담당자를 지역별 담당 도우미로 편성해 여러 필지로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대한 분할, 지적분경, 합병, 등기촉탁,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상담·안내를 한다.

기업이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등도 협의 지원한다.

기업에서 요청 시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발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을 포함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 배부해 기업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